

보도

“선배들이 합격한 모습, 뿌듯해요”  
CPA 합격 73명…대학 순위 4위

안나연 기자 yeonnaahn@khu.ac.kr

올해 우리학교는 73명의 CPA 합격자를 배출하며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전국 대학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58명에 비해 15명 상승한 결과이다. 우리학교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자 915명 중 7.9%에 달한다. 73명 중 전공별 합격자 수는 회계·세무학과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학과가 27명, 경제학과가 6명, 행정학과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역학과, 영문학과, 호텔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건축공학과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비약적으로 늘어난 합격자 수에 대해 공인회계사 고시반 청현재를 담당하는 황문호(회계·세무학) 지도교수는 학생들 간의 연대를 그 비결로 밝혔다. 황 교수는 “청현재에 모이는 113명은 학년도, 학과도 상이하지만 목표는 공인회계사로 똑같다”며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대는 청현재만의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진다.

주로 ‘멘토-멘티’는 ‘작년 합격자-올해 시험 준비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 실력의 차이가 있다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과정이다. 황 교수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후배에게도 흔쾌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며 멘토-멘티 관계를 통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지난 1일 7시 오후 151호에서는 합격자 73명을 위한 축하연이 열렸다. 축하연은 참석한 교수진과 선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17 공인회계사 합격현황 및 합격자 소개, 교수 및 선배의 격려의 말 그리고 만찬과 합격자 소감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44기부터 51기까지의 공인회계사 선배 57명과 교수진 9명뿐만 아니라 현재 청현재에서 공부하는 수험생 97명도 초대된 것이다. 황 교수는 “같이 공부한 선배 혹은 동기가 합격했으니 축하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현재 속 선후배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 현재 청현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중 한명인 김장한(경영학 2012) 씨는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 합격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합격자인 이지환(경영학 2011) 씨는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회계사 선배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학교의 CPA 합격자 수가 점차 높아지며 작년에 5위한 것에 이어 올해는 4위를 했다.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합격자인 소정현(호텔경영학 2009) 씨는 합격의 비결을 묻자 “기초부터 정확하게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래도 전공이 회계와 큰 관련이 없다보니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기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답을 꾸준히 정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공부비법을 말했다. “다른 전공에서 졸업한 뒤 시작해 수험기간이 길었던 만큼 기쁨이 크다”며 합격 소감을 밝혔다.



합격자를 위한 축하연이 9월 1일 오후 151호에서 열렸다

“교양학점 결코 많지 않다”  
객원교수 신분안정·처우개선 뜻도

후마 신임 학장 인터뷰 - ① 서울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서울】지난 24일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학장으로 교양연구소장이었던 이영준 교수가 임명됐다. 이 학장은 “국내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도약할 것”이라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후마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이 학장은 중핵교과의 많은 강의 인원에게 지적했다. 중핵교과의 강의 인원은 45명으로 토론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이에 대해 “35명까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양강좌 수 증설에 있어서 이 학장은 “공간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좌 수 증설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청운관에서 주로 교양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단과대 내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전에 논란이 됐던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지난 6월,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에서 객원교수의 신분안정화와 7년간 동결됐던 임금인상, 시간강사의 점진적 객원교수로의 신분전환을 주장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 학장은 “교수회의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중이다”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학교와 교수회의 모두 지향하는 바는 같다”라고 말하며 객원교수들의 신분안정화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초체력인 교양 탄탄히 해야

이 학장은 교양 학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현재 교양 학점은 33학점으로 서울대(36학점), 연세대(36학점), 고려대(37학점)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법을 배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영준 학장이 새로 취임했다 (사진 = 설지연 기자)

우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양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덧붙여 이 학장은 교양을 ‘기초체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기초체력을 키우고, 그 종목에 맞는 기술들을 배운다. 교양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모두 배우는 전공은 다르지만 기초체력인 ‘교양 과목’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장은 “이제는 살면서 여러 번 직업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라며 “교양 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여러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후마와의 차별점에 대해 이 학장은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을 내세웠다. 이는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마의 중핵교과들이 강의실 내에서 교재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 학장은 “문명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상 중이다”라며 “4대문명의 발상지에 학생들이 가서 책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에 대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 학장은 “교양과목은 학생들이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싫어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성학·심리학 강좌 개설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1학기부터 여성학과 심리학 관련 교양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원했던 교양 분야의 강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학장은 “실제로 중핵 교과 교재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 학장은 “우리학교는 ‘세계 평화의 날’을 만든 만큼 다른 학교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문학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고민 해왔다”라면서 “그러니 후마가 세계적인 교양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도 된다. 학생 개개인 또한 자기 자신에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09.11.(월) ~ 10.20.(금)  
■ 접수기간 : 2017.08.14.(월) ~ 2017.09.08.(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09.05(화), 09.06(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09.05(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레벨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고급1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화, 목) 07:45~08:45	오후반 17:30~19: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샵

일정 : 2017.9.6 (수) ~ 9.14 (목)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투고 전략 세우기

2주차 :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DB교육

RefWorks(서지관리), Turnitin(표절예방), KSDC/ICPSR(통계) 등

[참세일정]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투고 전략 세우기

2017.9.6.(수)	2017.9.7.(목)	2017.9.8.(금)
[14:00~15:30] <b>Scopus 활용</b> 선한연구 도서관 논문 투고 요령	[15:00~16:30] <b>2017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 세미나</b> Taylor & Francis 미디어 초청 강연	[14:00~15:30] <b>InCites 활용</b> 연구영역의 향성과 논문 투고 전략 모색 (Web of Science/JCR 연계)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법학관 3층 대강의실(301호)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2주차 :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DB 교육

2017.9.12.(화)	2017.9.13.(수)	2017.9.14.(목)
[14:00~15:00] <b>ProQuest</b> 해외 학위논문, 학술논문, eBook 이용법	[14:00~15:30] <b>Turnitin 교육</b> 표절예방 프로그램	[14:00~15:30] <b>KSDC/ICPSR</b> 통계 이용 및 설문지작성 교육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16:00~16:30] <b>RefWorks 교육</b> 서지관리 및 참고문헌 작성법		[16:00~17:00] <b>Academic Video Online</b> 전주제 분야 연구/작업을 비디오자료로 소개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서울)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khis.khu.ac.kr / 접속, 로그인 후 Research → 도서관 이용교육 신청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최장보영 (02-961-0205, khs001@khu.ac.kr)